

주일 예배 10시 50분

2018년 3월 25일(넷째 주)

*표의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순례자의 묵상

| | | |
|--------------------------------------|-------------------|------------|
| 예배로의 부름 | | 인도: 김성진 집사 |
| 찬양 | | |
| *기도 | 주기도문 | 다 함께 |
| *찬송 | 면류관 벗어나서(25장) | 다 함께 |
| *교독문 | 131번 | 다 함께 |
| *찬송 | 거기 너 있었는가(147장) | 다 함께 |
| 기도 | | 김성진 집사 |
| 찬송 | 주 달려 죽은 십자가(149장) | 다 함께 |
| 말씀 | | 고명환 목사 |
| -신앙의 길 2: 작은 자로 살아가기(누가복음 9장 46-48절) | | |
| 성찬식 | | |
| *찬송 | 갈보리산 위에(150장) | 다 함께 |
| 교회소식 | | 담당자 |
| 기도 | | 담당자 |

교회소식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식사 교제의 시간을 가집니다. 꼭 참여해 주세요.

-금주 수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7시로 변경합니다. 4월1일 기도-현운경

-금주 읽을 성경: 시편 4-10편, 이사야서 53장, 마태복음 26-28장, 마가복음 14-16장, 누가복음 22-24장, 요한복음 18-21장입니다.

-우리의 기도:

1. 몸된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님의 생명 속에 자라게 하소서
2. 세계 도처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들이 튼튼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3. 한반도에 평화를 주시고 북한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4. 한국과 미국의 청소년 젊은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모임시간 주일 10시50분, 수요일 오후 7시, 월-금 오전 5시20분, 토요일 오전 6시

지난 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새벽은 새로운 광야로 나가 보셨습니까?

싸늘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도 아니고 좋은 옷 입은 자도 아닌 그의 사람(그의 것)이 광야에 있었듯이 -세례 요한- 오늘도 그의 사람, 진정한 그의 벗으로 광야를 찾으심을 잊지 않으셨는지요?

우리는 누가복음 2 장에서 절기를 따라 예루살렘에 다녀오시던 주님의 부친과 모친이 12 세의 예수님을 잃어버림을 기억합니다. 부모님으로 참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룻길이나 ...

그렇다면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사렛 예수님이 당신과 내게도 어떠한 분이신데 하룻길을 지나도 찾지도 않으신단 말입니까? 그래도 요셉과 마리아는 3 일 길을 헤매며 찾았습니다.

모르긴 하지만 확실한 것은 더 시간이 걸려도 아니 더 어려울지라도 찾음을 멈출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동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찾지 않는다면 아마도 당신과 주님의 관계는 그러한 정도일 것입니다.

우리의 셋별이 우리에게 뚜렷해야만 할 것입니다. 승리의 땅 그일라를 뒤로 두고 아무런 일 없는 날 조용히 일어서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광야로 가던 다윗의 걸음이라면 참 기쁨 곧, 임마누엘의 기쁨과 찬송은 오늘의 그 어떤 광야에서라도 계속 될 것입니다.

주님 돕는 자의 모습으로

이은주

주님!

때때로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드려도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무거움이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내 것을 버리지 못해

내 욕심을 거두지 못해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그 말씀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그릇에

주님께서 주시지 않은 헛된 마음

모두 내려놓고

깨끗이 비우게 하시고

그 내려놓음을 힘겨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그런 믿음 또한 허락해 주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주님 향한
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 2:13)”

이 말씀처럼

내가 원하는 주님을 찾는 자가 아닌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선하신 뜻에 합당한

돕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소망 품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항상 주님의 마음처럼

기도하고 사랑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지금의 내 모습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국현순

오늘도 그 모든 것을

때로는 내게 유익해 보이는 것들까지

해로 여기며

주님 당신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고자

새롭게 마음 묶어봅니다.

이 순간도

주님 안에 뿌리 내리는 그곳에

아름다운 열매

겉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 속에 주님 향한

질은 사랑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누가복음 12장의 깨어 있는 종처럼

순간마다 깨어 있으므로

내 주님 한 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PALOUSE KOREAN CHURCH



2018년 3월 25일(12주)

1205 SE Professional Mall Blvd Suite 115

Pullman, WA 99163

Phone 978-807-4092

Website: pullmanpkc.org